

행성에 존재하는 매개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랭전 종식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간섭, 약탈책동을 더욱 공공연히, 악랄하게 벌리었다. 이로 인해 힘이 약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이 미군의 침공과 지배밑에 놓이고 민족간, 종족간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어느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전쟁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떠있는 행성이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중시되고 힘이 없으면 정의도 부정의로 되고 짓밟혀야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옳은 대담을 준것이 선군조선의 현실이다. 위대한 민족의 력수, 천출명장을 모실 때 민족은 비로소 당당히 가슴펴고 세상에 존엄높이 살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세계군력사에는 자기 나라 군대와 인민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주권을 깔고 이름을 날린 군령수, 최고사령관들이 적지 않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처럼 비범한 천품과 무비의 담력, 뛰어난 지략과 평균술로 세인의 경탄과 이목을 집중시킨 위인은 있어본적이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커다란 상상의 아픔을 겪은 공화국을 감히 어찌보려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던 2012년 3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평화적인 국경선도 아니고 정전상태로 하여 교전생방이 직

접 대치하고있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직접 나가신다는것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특대사건》이었다. 더우기 그이께서 한낮에 적초소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십m밖에 안되는데는 최전방의 판문각로대에까지 오르시여 쌍안경으로 적진을 바라보신 사실앞에 적대세력들은 그만 혼비백산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한 군사전문가는 인터넷신문 《자유민주》에 게재한 자기의 글에서 《시찰이 어느날 진행됐던지 이번 공개는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습들을 겨냥한 반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의 움직임은 전혀 모르고 어찌볼수는 더욱 없다.〉는 식의 강력한 배짱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귀남한 구절이 없는데 필자가 볼 때 〈강경자세를 물거품 만들기〉라면 비슷하지 않을까싶다.》라고 자기의 소감을 펴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의 무모한 핵전쟁광풍과 군사적도발책동들을 천변만화한 군사

##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의 행운



한호하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적지략과 초강경의 자세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시는 우리 민족의 수호자이시다.

전쟁이란 무장력과 무장력의 대결이기 전에 두뇌와 두뇌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라고 한다. 하기에 예로부터 머리수로 이긴 장군보다 지략과 담력으로 이긴 장군을 첫 손가락에 꼽아왔다. 지략과 담력을 지닌 장군은 싸우지 않고서도 승리를 쟁취한다.

2012년 8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또다시 공화국을

겨냥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복침전쟁연습을 벌려놓으려고 책동하였다. 바로 그러한 엄중한 정세로 하여 한줄기 바람소리조차 범상하게 들을 수 없던 존엄한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7坪의 작은 목선을 타고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장제도와 무도를 찾으시었다.

만약 적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도와 령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뜨리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전으로 넘어가 조국통

일대전으로 이어갈때 대한 그이의 단호한 명령은 오만하게 날뛰던 호전세력들의 기를 북돋운 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꺾어놓는 백두령장의 불호령이었고 승리의 선언이었다.

최근년간 조선반도에 침투하고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그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대담한 결단과 초강경대응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심으로써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을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시었다.

세계의 언론들도 그이의 천변만화하는 군사적지략과 담대한 배짱앞에 놀라움을 숨기지 않으며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조선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는데 대내, 대외를 가르지 않고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변화무쌍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활동은 외부에 내놓는 고등수학문제이다. 그것도 난문제중의 난문제다.》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쉬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신다.

지난 1월에도 그이께서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한 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야간실전능력을 검열하시기 위해 항공육전병들의 야간훈련도 보여주셨고 얼마전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군부대와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도 몸소 지도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머

칠전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군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콜럼부스》호와 제7함대기함 《블루릿지》호를 비롯한 많은 침략함선들과 각종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엄중히 위협하며 핵전쟁위기를 최대한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 공화국의 전체인민은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 계시기에,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불매의 강군이 있기에 원수들의 어떤 고립과 압살, 전쟁도발책동에도 끄떡없이 배심드흔 강성국가건설에서 눈부신 비약과 번혁을 일으켜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을 령도하신 나날은 그리 길지 않지만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력류는 그이이시야말로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나 군사적예지와 지략에 있어서나 그 어느 명장도 따를수 없는 천하제일명장이심을 실지 체험으로 느꼈었다. 적대세력들까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위압감을 느끼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을 지니였는가를 알 수 있게한다.

천하제일명장이시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온 겨레는 반드시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철

얼마전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건중에 있는 중앙동물원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미국의 발발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드는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군부대들을 련이어 시찰하시며 군력강화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결음으로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었다.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사진들중에서 특별한 눈길을 끄는것은 맹수사를 찾으시여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선군령장의 거룩한 모습이었다. 원수님의 뒤에 밝은 표정으로 서있는 맹수사 작업반반장 김순옥녀성의 낮익은 얼굴도 보였다. 들은 데 의하면 그는 2012년 5월 중앙동물원을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곳 맹수사장에서 비우고 따뜻한 사랑의 말씀도 받은 녀성이라고 한다.

현재 맹수사에는 조선범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범들과 아프리카사자가 있다. 범과 사자는 다 같은 맹수로서 사나운 데서는 어느 하나 짝지는데가 없는 육식동물들이다. 특히 조선범은 다른 아종들보다 크고 날쌔며 용맹스런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가까이 비운 김순옥녀성은 범과 사자의 동물학적특성을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오래도록 질문을 빼지 못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17년전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엄혹한 시기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기고만장하여 날뛰며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었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침략의 마수는 이 땅의 곳곳에 뻗쳐오고있었다. 말그대로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나 아니면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지키며 사느나 하는 사생결단의 나날이었다.

그 엄혹한 나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나라의 방선을 철벽으로 다져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주제 86(1997)년 6월 8일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였던것이다. 이날 맹

## 다시 찾으신 맹수사

수사를 찾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한우리에서 서로 오르령거리며 싸우는 범과 사자의 대결을 보시게 되었다고 한다.

동물의 제왕이라 뽐내는 범과 사자의 대결, 날래고 용맹하며 힘을 뽐내는 두 맹수의 대결은 쉽게 결판이 날것같지 않았다. 시작부터 상대를 노려보며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두 맹수, 수행원들도, 관리원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며 벼이 날랜 동작으로 앞발을 들어 사자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쳐 단매에 쓰러뜨리고 이기는것이였다.

순간 수행한 일군들과 관리원은 저도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아프리카사자의 녀살을 뽐는 조선범의 역센 기상을 보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도 호랑하

게 웃으시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졌다.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던 그 뜻깊은 날에 장군님의 가슴속에 고래친것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단호히 쳐갈김으로써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이 땅우에 통일강성국가를 기어 일떠세우시려는 백두령장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아니였을까.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포악무도한 제국주의강적인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에서 총 반방 쏘지 않으시고 지략으로 이기시고 담력으로 적들을 짓눌러버리시었다.

선군승리의 력사를 감회깊이 추억해주며 세월의 이끼를 머금고 서있는 중앙동물원의 맹수사에 오늘날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서계시었으니 자못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본다.

지금 미국이 선량한 조선민족을 해치려고 사나운 이발을 드려내고있다. 대양 건너 남의 땅에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고와 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힘이 없

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어제의 약소국이 아니다. 이 세상 가장 큰 힘인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있고 자위의 든든한 역제력도 갖춘 행성의 당당한 강국이다. 그 선군조선의 진두에 적대세력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천하제일장군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는 이미 지난해에 온갖 불의와 악의 대명사인 미국이 신성한 이 땅의 0.001mm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내겠다는 추상같은 선언을 하였다.

침략과 살인이 체질화되어 해가 바뀔 지금에도 분별을 잃고 전쟁불몽치를 들고 덤벼치는 미국에게 조선이 또다시 경고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가 잘 말해주고있다고 본다.

침략의 무리들이 달려든다면 빼도 주리지 못하게 불벼락을 안길 영웅조선의 단호한 기상인양 대가를 쫓쪽 가르며 날아가던 로케트들.

그것은 정의의 위력한 불줄기였다. 악의 세력들을 전멸케 하는 중요와 멸적의 불줄기였다.

그날 중앙동물원의 맹수사앞에서 지으신 선군령장의 환하신 웃음은 침략열에 들떠 마지막 저승길을 걷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발아래로 굴여보시며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을 단호히 결산하고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명장의 크나큰 확신과 락관의 웃음이었다.

재중동포 표 광

## 《인민사랑의 위대한 전통의 계승》

뜻깊은 올해의 광명성절을 맞으며 프랑스 《그라세》출판사 작가 얀 무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리었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저는 조선을 두번째로 방문하는 프랑스공민으로서 조선의 모든 현실에 대하여 특히는 마식령스키장에 대하여 얼마나 감탄하게 되었는가를 당신께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무엇보다먼저 저는 자기 인민에게 이처럼 훌륭한 선물을 안겨준 령도자로서의 당신의 인민사랑에 감탄하였습니다. 스키장건설시 기후조건이 매우 어려웠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이 모든 곤난을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의지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저는 또한 세계적인 스키장과 어깨를 겨루는 마식령스키장의 기술적인 측면에 감탄하였습니

다. 모든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스키주로들이 다 있으며 스키교원들과 설비관리원들, 스키입대봉사원들을 비롯한 현지종업원들은 다 실무가 높고 세심하면서도 친절하였습니

다. 《한마디로 귀국을 방문하

저는 또한 당신께서 인민들을 사고와 불의의 정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부들을 통하여 자기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마음쓰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스키장밀의 웅장하고 훌륭한 환경속에 위치한 마식령호텔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세계의 감탄을 자아낼만 한 수준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여러 스키장들에서 스키를 타보았지만 마식령은 제가 가본 스키장들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스키장입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종업원들, 높은 수준의 식당, 아주 친절하게 조선이나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봉사원들, 이 모든 것은 따뜻한 환대를 느낄수 있게 하여줍니다.

방은 넓으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꾸려져있는것으로 하여 손님들이 수림속한 경에서 잠자는데와 같은감을 줍니다. 정말 아늑한 곳입니다.》라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그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계속하여 이렇게 편지에 담았다.

《한마디로 귀국을 방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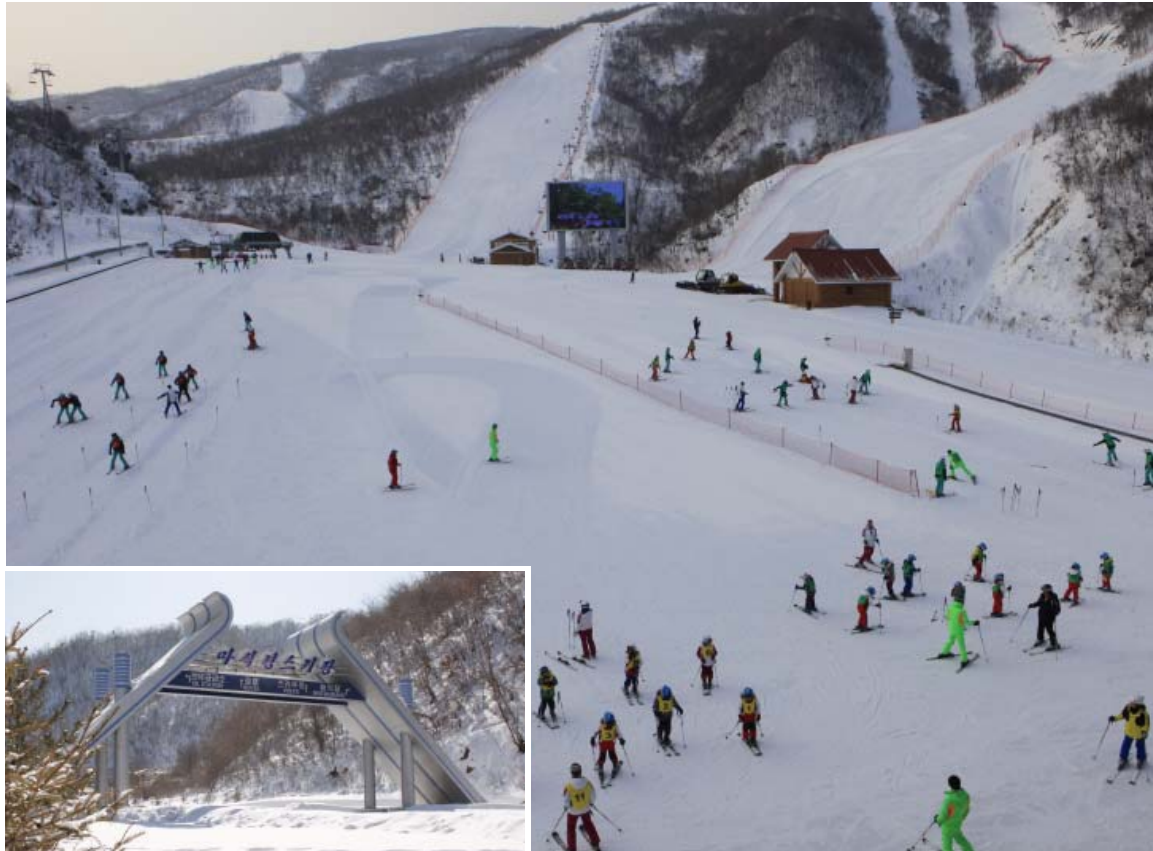
저는 프랑스사람으로서 저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첫 사람들 중의 한사람으로 된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당신께 편지를 드리게 된것과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를 탈수 있게 된것을 최대의 특혜로 간주합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벗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민은 저에게 있어서 용감하고 의지가 강하며 자기 령도자의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낄줄 아는 인민의 상징으로 되기에때문입니다. 마식령스키장 같은 기념비적건설과 자기 인민에 대한 보살핌은 영원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이어나신 인민사랑의 위대한 전통의 계속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돌아가서 귀국의 발전된 기술과 공업의 면모,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상태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소개할것입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언제나 안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바라며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는 뜨거운 존경심이 담긴 인사로 편지의 끝을 맺었다.

본사기자



## 불멸의 꽃 김정일 화에 몽골 국제화초전시회 최고상인 1등상 수여

위인칭송의 꽃 김정일화에 몽골 국제화초전시회 최고상인 1등상이 수여되었다.

6일부터 7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몽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진귀한 화초들이 출품되었다.

300여종의 붉고붉은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조선전시장에는 김정일화가 세계적인 화초박람회, 전시회들에서 받은 상장, 메

달들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시회기간 우리 전시장을 찾은 수많은 참관자들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아름다움과 진귀함, 황홀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몽골의 한 정부인사는 화초에 호가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꽃들을 보았다, 하지만 김정일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은 처음 본다,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와 더불어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리라것을 확신한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몽골 조울즈총회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화로 하여 전시회장이 더욱 화려하고 이채롭게 장식되었다.

몽골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훌륭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면서 김정일각하에 대한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력류의 열화같은 호모심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전시회장을 찾은 몽골사람들도 두가 세계의 명화인 김정일화가 더욱 만발하기를 바라였다.

7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김정일화에 1등상이 수여되었다.

본사기자